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태국 방송과 종교 보도: 공공성, 중립성, 다양성의 균형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태국 방송과 종교 보도: 공공성, 중립성, 다양성의 균형 2025년 08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콘텐츠 일반	▶ **태국 방송과 종교 보도: 공공성, 중립성, 다양성의 균형** ▸태국의 법과 종교/ 종교 콘텐츠 관련 법과 규제/ 방송과 영화 속 종교 논란 관련 사례/ 공영방송 Thai PBS: 다종교 사회에서의 공공성, 다양성, 중립성 구현/ 결론: 전망 및 시사점	▸태국 ▸방송 ▸종교 ▸법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태국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5.10.20.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콘텐츠와 세계로 미래로

태국 방송과 종교 보도: 공공성, 중립성, 다양성의 균형

순서

Ⅰ. 태국의 법과 종교
Ⅱ. 종교 콘텐츠 관련 법과 규제
Ⅲ. 방송과 영화 속 종교 논란 관련 사례
Ⅳ. 공영방송 Thai PBS: 다종교 사회에서의 공공성, 다양성, 중립성 구현
Ⅴ. 결론: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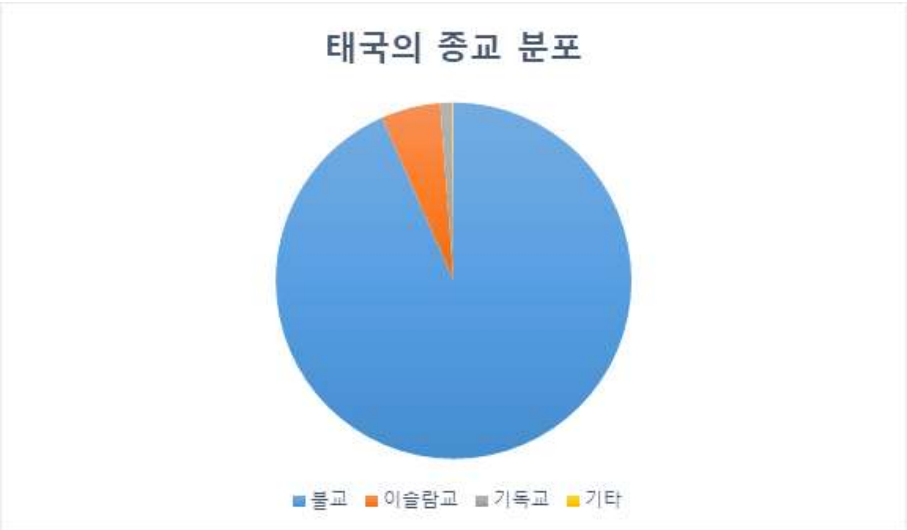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Ⅰ 태국의 법과 종교

1 헌법: 종교의 다양성 보호의 국가적 의무

태국 내 종교의 다양성

- 태국 정부의 문화부 산하 종교국(Religious Affairs Department)에서 공인하고 있는 종교는 모두 5 개이며, 불교, 이슬람교, 힌두-브라만교,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시크교임
  - ·· 태국 정부의 디지털경제문화부 산하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ailand)은 매 4 년마다 「사회·문화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조사하고 이를 통계로 발표함
  - ··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인 2018 년의 자료에 따르면, 불교 93.5%, 이슬람교 5.4%, 기독교 1.1%, 기타 0.1% 미만으로 집계되었음



| 표 1 | 태국의 종교 분포
(출처: The 2018 Survey On Conditions Of Society, Culture and Mental Health)

·· 종교의 분포는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교는 동북부 98.9%, 중부 97%, 북부 96.9%, 방콕 93.7%를 차지했으며, 남부에서는 70.9%를 차지함. 불교는 태국의 국교는 아니지만, 태국에서 가장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이며, 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이슬람교는 남부 28.9%, 방콕 5%, 중부 2.5%, 북부 0.1%, 동북부 0.1% 미만으로 집계됨. 이는 말레이시아와 접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말레이계 혈통의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며 무슬림 사회인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문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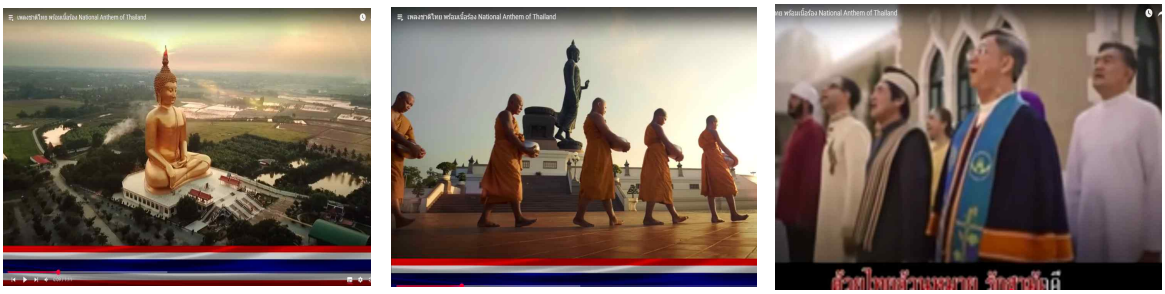
·· 기독교는 북부 3.0%, 방콕 1.3%, 동북부 1.1%, 중부 0.5%, 남부 0.2%로 집계됨. 이는 북부 고산족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지원과 포교 활동이 함께 펼쳐지며, 과거 보편종교가 아닌 토착신을 신봉하던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임

2017 년 헌법에 명시된 종교 표현의 기본 틀

- 태국에서 종교의 분포는 대부분 인종,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종이 흔하지 않음. 다수가 타이족인 사회에서 소수를 인정하고 배려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로 귀결되고, 이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7 년 헌법의 제 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 국가는 불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며, 또한 다른 종교들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불교가 오랜 기간 태국 국민이 주로 신봉해온 종교임을 고려하여, 국가는 테라바다 불교의 가르침(법의 원리)의 교육 및 보급을 촉진해야 하고, 불교가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과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나아가 불교인들이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함
  - ·· 이 조항은 불교에 대해 특별히 우위적인 보호 의무를 명시하면서도, 불교 외 타 종교도 보호해야 함을 언급함. 이는 태국의 종교 다원성의 틀을 포함하고 있음. 결국 방송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불교 중심주의와 종교 간 균형성을 둘 다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동 헌법 제 3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 개인은 종교를 신앙할 권리와 종교 의식을 행할 권리를 가짐. 다만, 이는 국민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 ·· 이 조항은 방송 콘텐츠에서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특히, 종교적 갈등 조장, 혐오 표현, 극단주의 서사 등의 콘텐츠는 여기에 해당할 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 헌법 제 7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 태국 국민은 국가·종교·국왕을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를 짐
  - ·· 이 원칙은 방송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종교에 대한 모독·왜곡·비방이 허용되지 않는 기초 근거가 됨

국가의 방송 송출과 그 속에 나타난 종교

- 태국의 지상파·위성·라디오 방송 등 모든 공영·민영 방송국은 오전 6시와 오후 6시 매일 두 차례 정해진 시간에 국가를 송출하며, 그 속에 종교의 다양성이 나타나 있음. 특히 공영방송(Thai PBS, NBT)과 주요 민영 채널(Ch3, 7, 9 등)은 모두 예외 없이 매일 국가를 송출함



| 그림 1 | 방송 송출되는 태국의 국가 속 종교
(출처: https://youtu.be/HTHpkQJ3pVI?si=CTZPf1BFMIhACbLa)

- 직접적으로 방송사가 '국가를 송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방송·텔레비전 사업법(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es Act, 2008) 상 방송 사업자는 국가·종교·국왕(ชาติ ศาสนา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에 대한 존중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국가 송출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 상징 존중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사 인허가 조건 및 가이드라인에서 국가와 국왕에 대한 존중을 방송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대 이후에도 일부 방송사가 국가 송출을 누락했을 때 주의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음
- 방송 송출되는 국가에는 불교가 국가 시작 부분에 홀로 등장하여 태국에서 지니는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며, 이후 태국인은 단결을 사랑한다는 가사 부분에 이슬람교, 브라만-힌두교, 기독교, 시크교의 지도자들을 배치하여 종교적 화합의 중요성을 드러냄

II 종교 콘텐츠 관련 법과 규제

1 방송·텔레비전 사업법(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es Act, 2008)

방송·텔레비전 사업을 위한 기본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허가는 주파수 사용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컨대, public service, community service, 그리고 business service 등 라이선스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른 라이선스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방송국 운영자는 시청자가 필수 공공정보(뉴스·교육·재난 방송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익 채널을 반드시 포함해 송출해야 한다'는 must-carry 규정과 방송이 공공재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국민적 행사나 국가적 중요 콘텐츠 등)는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must-have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콘텐츠 제작 시 윤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자율규제 의무가 있음. 이는 국민 전체의 알 권리·문화권·종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의 의무임
- 영리 방송의 경우, 광고 시간 제한 및 콘텐츠 심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함. 이는 종교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공적 기준과 윤리적 틀 안에서 제작되어야 함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제 37 조

-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제 37 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①국왕이 군주로 있는 민주정 체제를 전복하거나 그것을 위협하는 내용
  - ②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내용
  - ③공공 질서 또는 국민의 도덕성(미풍양속)을 훼손하는 내용
  - ④외설 또는 음란 행위
  - ⑤국민의 정신건강 또는 신체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 또한 방송국 또는 허가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방송 내용이 제 37 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위 조항 자체는 종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덕성' 또는 '공공 질서' 부분이 종교적 가치나 전통 관습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종교적 표현이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7 조를 근거로 정치·국가 체제, 안보,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종교 모독·종교 갈등 조장 표현도 제재 대상 범주로 해석하고 있음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제 64 조

-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제 64 조에는 방송사업자가 법률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 명령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한 위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내릴 수 있음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주파수 관리, 라이선스 발급 및 취소, 시장 경쟁 규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규제 기관임. 기술·상업적 규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국가·종교·왕)을 수호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다룸. 특히 종교는 태국 사회에서 정치·문화와 깊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음
  - ① 종교 모독·왜곡 금지 (Prohibition of Religious Defamation or Distortion): 어떤 방송도 특정 종교의 교리, 인물, 상징을 조롱·왜곡·모욕해서는 안 됨. 불교뿐 아니라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가 동일한 보호 대상임. 종교적 신념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고, 벌금, 방송 중단, 면허 취소까지 가능함

·· ② 종교 간 갈등 조장 행위 금지 (Ban on Incitement of Interreligious Conflict): 종교 간 증오, 차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금지. 특정 종파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타 종교를 열등하게 묘사하는 행위도 포함함. 종교적 편향을 이용한 정치 선전·상업 광고 역시 제재 대상임

·· 이는 곧 '방송은 종교적 다양성과 조화를 해치는 어떠한 형태의 언어, 이미지, 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③ 종교적 가치·문화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Religious Symbols and Practices): 방송에서 종교 의식·예배·상징(예: 불상, 코란, 십자가 등)을 다룰 때는 존중과 신중함이 요구됨. 코미디나 예능에서 종교적 요소를 가볍게 다루는 것조차 사회적 반발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불상을 상업적 이미지로 사용한 광고나 프로그램은 '종교 상징 훼손'으로 시정명령 또는 방영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④ 종교 관련 프로그램의 공공성·중립성 확보 (Ensuring Public Interest and Neutrality in Religious Programming): 종교 프로그램은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윤리, 사회 통합, 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해야 함. 공영방송(Thai PBS, NBT 등)은 다양한 종교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의무를 지님. 종교 보도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고 비판적·중립적 시각을 유지해야 함

·· 예를 들어, Thai PBS는 불교 중심 사회라는 현실을 인정하되, 기독교·이슬람 등 소수 종교 관련 프로그램도 일정 비율 편성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3 공영 방송의 운영 원칙 및 윤리 기준

Thai PBS(Thai Public Broadcasting Service)의 운영 원칙 및 윤리 기준

- Thai PBS는 태국공영방송법(Thai Public Broadcasting Service Act 2008)에 의해 2008년 설립된 태국 방송 체계에서 유일하고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단순한 방송사가 아니라 태국 사회에서 공공성·중립성·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임
-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책임을 가지고, 정치적·영리적 영향력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시청자 위원회와 시민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를 갖추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Thai PBS의 미디어 윤리강령(Media Code of Ethics)에는 제작진과 프로그램 제작 과정은 책임감, 정직성,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위원회가 프로그램 검토 및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를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음
- Thai PBS는 시청자 참여 시스템 활용하여, 시청자 위원회, 시민 저널리스트 등 공적 참여 채널을 통해 종교 콘텐츠 제작에 대한 균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4 영화 콘텐츠 속 종교 관련 규제

영화 및 비디오 법(Film and Video Act, 2008)

- 태국은 2008 년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 법(Film and Video Act)”을 통해 영화 및 영상물의 내용 규제를 다루고 있음
  - ·· 이 법은 이전의 사전 검열 중심 체계(prior censorship)에서 분류(rating) 중심 체계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 ·· 영화의 상영 허가 및 등급 배분은 문화부 산하 기관이 관장하며,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이 등급 체계와 검열 기준을 정함
  - ·· 영화 및 비디오 법 제 21 조(상영 금지 사유)에 따르면, 문화부 산하 영화 및 비디오 심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화를 금지할 수 있음
  - ·· ①국가 안보,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 ·· ②국왕, 왕실, 불교 및 기타 종교에 대한 존엄을 해치는 경우
  - ·· ③사회·문화적 가치와 도덕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 ·· ④외교 관계나 국제적 신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위 조항에서 제 2 항이 종교 관련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임. 이 조항은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교적 위상을 가진 상좌부 불교 보호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헌법 제 67 조(불교 보호 의무)와 연계되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
  - ·· 이 외에도 태국은 2009 년 제정된 영화 분류에 관한 각 부령 (Ministerial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of Films, 2009)을 통해 영화를 7 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영화 심의위원회나 문화부는 특정 내용이 사회 도덕, 문화 정체성, 종교 감수성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상영 금지나 편집을 요청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 심의위원회의 제재

- 모든 영화는 상영 전에 문화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검열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작·수입 및 심의 미이행 시 형사 처벌 가능함
- 법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심의 기준서나 위원회의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화부의 내부 지침표현이 다음과 같이 존재함
  - ·· ①불교와 기타 종교의 가르침, 교리, 성직자 또는 상징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 ②승려·사찰·불상 등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성적, 폭력적 맥락에 결합해서는 안됨
  - ·· ③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신앙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국가 안보, 공공질서, 왕실·종교에 대한 존엄을 훼손하는 표현은 상영 금지 가능하며, 특히 불교와 승려에 대한 묘사에서 '불경(佛敬) 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검열 대상이 되거나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음

- 심의위원회는 종교 표현이 사회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전 편집·삭제·상영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특정 종교 교리나 승려를 풍자하는 표현도 검열 대상에 포함됨. 표현의 자유보다 종교적 감수성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검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허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함
- 태국 영화계에서는 '검열에서 등급제로 전환한 척했으나, 종교와 왕실 관련 부분은 여전히 사전 검열(pre-censorship) 체제가 유지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5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규제의 한계

태국의 OTT·온라인 콘텐츠 종교 표현 규제 현황

- OTT 및 온라인 콘텐츠 (인터넷 스트리밍 등)의 규제는 정비가 미비한 상황으로 전통적 방식의 방송에 비해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종교 표현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OTT 콘텐츠는 그 전달 방식이 인터넷 기반이어서, 전통 미디어 콘텐츠처럼 사전 심의 또는 허가가 필수인 경우가 아직 많지 않음
  - ·· OTT 콘텐츠 및 OTT 서비스 제공자는 아직 특정 정부 기관이 규율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령이 없음. 따라서 즉, OTT 에서의 종교 표현은 전적으로 일반 법 조항(예를 들어, 명예훼손법, 헌법, 공공 질서 조항 등)에 준해서 해석됨
  - ·· 그러나 2025 년 태국 대법원 행정 재판부는 "OTT 텔레비전 서비스도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검토하기로 함. 즉, OTT 도 기존 방송 규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이 법원 쪽에서 인정받을 가능성 존재
  - ·· 2025 년 기준, '24 시간 콘텐츠 철회 규정(Notification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s Commission)'이 시행됨. 온라인 플랫폼은 기술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 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24 시간 내에 삭제해야 함
  - ·· 비록 위 규정은 주로 허위 정보나 기술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종교 비방·모독이 기술 범죄 또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해석될 경우 적용 가능성 있음
  - ·· 최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자거래개발국(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과 함께 OTT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작업 그룹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림. 외국 플랫폼도 태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됨
  - ··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 질서·종교 존엄성'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OTT 에서도 종교 표현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위와 같이 24 시간 콘텐츠 철회 규정 도입과 OTT 규제 강화 움직임, 법원 판례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온라인 콘텐츠에도 종교 표현 제재 가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II 방송과 영화 속 종교 논란 관련 사례

1 종교 방송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Dhammakaya Media Channel) 제재 사례

왓 프라 탐마까야(Wat Phra Dhammakaya)와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Dhammakaya Media Channel)

-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은 태국 상좌부 불교의 양대 종파 중 하나인 마하니까이(Mahanikaya Nikaya)에 속한 왓 프라 탐마까야 사원(Wat Phra Dhammakaya)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채널임
- 왓 프라 탐마까야 사원은 1970 년도 설립되었으며, 대중 참여형 명상 운동과 현대식 불교 조직을 결합한 신흥 불교 운동을 일으킴. 이들은 불교 축일에 전통 사찰에서 보기 어려운 대중 집회·집단 명상·대규모 의식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짐
- 모두의 내면에서 탐마까야(법신)이 있으며, 명상을 통해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설포하며, 명상 수행법을 통해 내면의 법신을 체험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침
- 위와 같은 교리는 상좌부 불교가 강조하는 '무아(無我)' 개념보다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佛性)' 개념에 가까워 승가 내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정통 교리에서 벗아났다는 비판을 초래함
- 왓 프라 탐마까야 사원의 운영은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 포교를 펼치며, 집단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대규모 조직 구조: 방대한 승려·재가자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태국 국내외 30 개국 이상에 지부를 설립. 질서정연한 의례·복장·행렬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조직력'과 '집단성'을 강조
  - ·· 효율적 관리 체계: 전문 행정인력, 마케팅 팀, 국제홍보 부서를 보유. 대중행사, 명상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기업 수준의 운영 체계를 갖춤
  - ·· IT·디지털 활용: 방송 채널(DMC), 온라인 법문, SNS 홍보를 통해 젊은 세대와 해외 신도층까지 영향력 확대
  - ·· 기부 시스템의 체계화: 정기·자동 기부 시스템, 신도 명단 관리, 대규모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확보. '상업화된 불교'라는 비판과 '현대 사회에 적응한 불교'라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

| 그림 2 | 왓 프라 탐마까야 사원의 대규모 군집 명상
(출처: https://iblogs072.blogspot.com/2016/03/blog-post.html)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의 정치적 색채

- 수사 저지 및 사찰 봉쇄 저항 선동 방송 (2016-2017)을 통한 정부 비판 및 불신 조장 메시지 반복 방송
  - 2016 년 후반~2017 년 초,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 즉 태국 군정(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은 법무부 특수수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과 함께 전 주지승인 프라탐마차요(Phradhammachayo)가 대규모 횡령·돈세탁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함
  - 이에 정부는 왓 탐마까야 사원 수색 및 진입 작전을 실시하였고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은 이를 방해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송출함
  - 방송에서 '정부의 수색은 부당한 종교 탄압이며, 불법적인 행동이다', '신도들은 함께 사찰을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해 모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불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와 같이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신도들의 결집을 유도함
- 신도 동원 메시지와 '정치적 집결' 호소 방송
  -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 방송을 통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왔다', '우리의 도량을 함께 지켜야 한다'. '평화를 위한 명상을 위해 사찰로 모이자'와 같은 메시지를 송출해 정치적 집결을 호소함
  - 이 방송 이후 수천~수만 명의 신도가 사찰 경내에 상주하며 정부 진입을 막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정부는 이를 '방송을 통한 조직적 저항 동원'으로 규정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에 대한 제재의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에 제재를 가함
  - ①국가 안보·공공질서 위협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2016 년 ~2017 년 사이 태국 군정이 탐마까야 사원 주지승의 횡령·돈세탁 혐의 수사를 진행하던 중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 방송을 통해 사찰 신도들에게 정부의 수사에 저항하라고 암시하거나, 정부를 비난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한 종교 교리 방송을 넘어 국가기관의 집행을 방해하고 대중을 선동한 것이 '사회적 혼란 조장,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함
  - ②법령 위반 – 방송법 제 37 조 및 군정명령 97 호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의 방송이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제 64 조와 군정의 공보 관련 명령 제 97/2557 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동법 제 64 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NBTC 가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군정 명령 제 97 호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왕실·종교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세 안정·협조 의무를 규정함
  - ③종교기관의 방송 매체를 통한 영향력 남용: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은 '불교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찰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종교를 이용한 사회 갈등 조장으로 보여짐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제 진행 과정

시기	조치 내용	근거 조항	사유
2016.12.8	방송 정지 명령 (15~30 일)	방송법 제 37 조, 제 64 조, 군정 명령 제 97 호	'공공질서 위협' 사유
2016.12.26	방송 면허 영구 취소	방송법 제 37 조, 제 64 조, 군정 명령 제 97 호	혼란 조장 및 국가안보 위협
2017.4 이후	'Global Buddhist Network(GBN)'로 재출범 (온라인 중심)		

| 표 2 | 방송통신위원회의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 제재 (출처: 직접 작성)

- 탐마까야 미디어 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로 방송 면허가 영구 취소된 이후, 위성 채널 방송을 종료하고, 아직 규제가 미비한 온라인으로 방향을 선회함

2 Knowing Buddha Organization의 캠페인

Knowing Buddha Organization (KBO)

- KBO 는 태국의 불교 옹호 단체로 부처의 이미지나 상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불교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 설립자 앗차라와디 웡사꼰(Acharavadee Wongsakon)은 사업가 출신으로 중생 지도 및 불교 수련에 몰입하면서 이 조직을 설립함
- 앗차라와디는 태국 총리실 산하의 국가불교청(National Office of Buddhism)으로부터 인정 또는 일부 후원을 받았음
- KBO 의 회원 수는 약 5,000 명 내외로 알려지며, 태국 내외의 부처 이미지 오남용 사례를 감시하고 제보를 받아 대응하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KBO 의 설립자의 방송 출연으로 촉발된 논쟁과 행정 점검

- 2018 년 1 월, Thai PBS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떱쫏(ตอบโจทย์)'에 KBO 설립자 앗차라와디가 출연. 불교의 두타 수행법, 재가자도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 등의 교학 등에 대한 주제로 승려 및 불교학자와 함께 논쟁함

| 그림 3 | Thai PBS의 '떱쫏'에 출연한 앗차라와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4fnbiMOg28&t=683s)

- 그러나 이에 대한 불교계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과 민원이 제기됨
  - ·· 앗차라와디가 설명한 두타 수행법이 정통 불교 교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부 승려·불교 단체의 비판
  - ·· 앗차라와디가 승려 자격 없이 불법(佛法)을 설한다'는 문제 제기
  - ·· 재가자도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발언이 불교 교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
  - ·· 이에 국가불교청은 정식 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경과 조사를 하는 '사안 점검(preliminary examination)'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 Thai PBS 뉴스 및 여타 언론이 KBO 대표 관련 보도·후속 기사를 연이어 송출하며, 헌법 제 67 조의 '불교 보호 의무'와 언론의 '감시·토론 기능'이 충돌·조응하는 모습이 보여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해 온 정확성·균형·사회적 책임의 적용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방송사는 토론 구성과 팩트 검증에서 균형·다양성을 확보해야 함이 제기됨
- 국가불교청은 조사 후 '현행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다만 교학적 논란이 있는 만큼 승가최고위원회(Supreme Sangha Council)와 협의할 예정임을 밝힘

KBO 의 긍정적 활동 사례와 영향

- 남성지 Maxim 의 부처상과 란제리 화보 계획에 대해 종교 상징의 모독적 사용이라 판단하고 촬영 취소를 요구함
-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전시에서 부처 두상을 바닥에 놓는 배치에 항의, 전시 동선·연출 수정을 이끌어냄
- 프랑스·네덜란드의 부처상 변기·욕실용품 단종하거나 제품 생산을 철회하도록 압박하여 성과를 얻어냄
- 위와 같은 비(非)방송 매체에서의 철회·수정은, 방송사(지상파·케이블·OTT)에게도 자율 심의·사전 검토 강화를 유도하고, 특히 세트·소품·광고 PPL·그래픽에서 부처 이미지 사용 시 고위험 요소로 인식하도록 함
- 드라마·예능의 패러디·팝컬처 차용에서 부처상·불교상징 사용은 크로스 체크·법무 검토가 필요하며, 방송사는 사전 심의 체크리스트(장면 맥락, 희화화 여부, 광고·상품 연계성, 타종교 균형, 피해가능성, 시청자위원회 의견 등)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영화 속 종교 관련 장면 제재 사례

헌법 제 67 조 국가는 불교를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종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 영화 및 비디오법의 제 21 조 2 항의 국왕, 왕실, 불교 또는 기타 종교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내용에 대한 규제에 근거하여 영화 속 종교 관련 제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 종교를 직접적으로 모독하지 않더라도 승려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종교 의식을 희화화한 장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해당 법 조항에는 '다른 종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불교·승려·불상에 대한 묘사가 가장 엄격히 심사됨

특히 승려가 계율을 어기는 장면(술, 성, 범죄)은 거의 예외 없이 삭제 요구 또는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지며, 다큐멘터리에서도 불교 비판이나 분열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의 대상이 됨

영화 속 종교 관련 장면 제재 사례

작품 제목	개봉연도	문제 장면	제재 사례
Angulimala(องคุลิมาล)	2003	불교 경전의 인물을 폭력적으로 묘사(불교 교리 왜곡)	일부 편집 후 개봉
Arbat(อาบัติ)	2015	승려가 술을 마시고 성적 관계를 맺는 장면(승려와 불교의 존엄을 훼손)	일부 편집 후 개봉
Come and See(เอหิปัสสิโก)	2019	탐마까야 관련 분쟁 다룬 다큐멘터리(종교 분열 조장 또는 신앙 훼손)	초기에 상영 불허 → 조건부 승인 후 개봉
Hoon Payon(หุ่นพยนต์)	2023	불상과 부적을 공포물로 다룸(종교 상징을 저속하게 사용)	일부 장면 편집 요구 받음

| 표 3 | 종교 관련 장면 제재 사례 영화 (출처: 직접 작성)

IV 공영방송 Thai PBS: 다종교 사회에서의 공공성, 다양성, 중립성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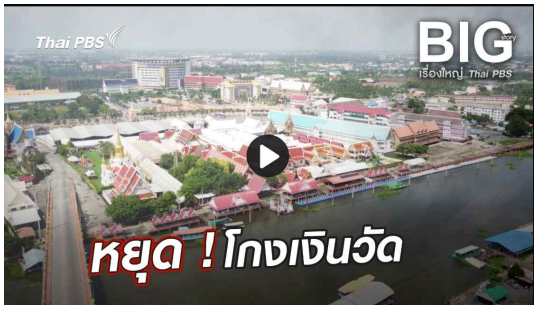
1 Thai PBS의 불교 관련 방송: 공익 감시와 공공 담론

- **시사 프로그램 '떱쫏(ตอบโจทย์)'은 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중요한 현안·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토론하는 주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며, 아래와 같이 불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다루면서 불교를 감시하고 공공 담론화 하였음**
  - 2025 년 5 월 19 일, 사찰 기금 횡령, 누가 책임져야 하나? (**เงินวัดโดนยักยอก ใคร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 라는 주제로 한 토론 방영
    - ·· 왓 라이킹(Wat Rai Khing) 사찰에서 수백만 바트의 기부금이 전(前) 승려 프라얌(Phra Yaem)에 의해 횡령된 사건을 심층 분석하며, 이를 단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사찰 재정 투명성, 관리·감사 제도의 부재, 종단 책임 구조 문제로 확대 논의함
    - ·· 법학자·승려 대표·정부 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제도 개혁, 감사 체계 강화, 국가의 감독 역할 등을 토론함
    - ·· 불교계 내부 비리를 신앙 문제가 아닌 공적 자원 관리·공공 책임 문제로 재구성
  - 2025 년 8 월 26 일, 전 승려 아롱꼿과 닥터 비가 연루된 사찰 자금 횡령 사건, 수사 확대에 이목 집중(จับตา 'ขยายผล' คดียักยอกเงินวัด 'อดีตพระอลงกต' – หมอบี)이라는 주제로 한 심층 토론 방영
    - ·· 전(前) 승려 알롱꼿(Phra Alongkot)의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관련 인물 연루 가능성 등을 다루면서 사찰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신도 기부금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
    - ·· 불교 사원의 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교의 자율성'과 '공공 감시' 간 균형 문제를 논의
    - ·· 개인 범죄를 넘어 불교 제도 개혁·감시 시스템 구축 논의로 확장

| 그림 4 | Thai PBS의 '떱쫏' 방송 장면
(출처: https://www.thaipbs.or.th/program/TobJote/watch/lPajAp?utm_source=chatgpt.com
https://www.thaipbs.or.th/program/TobJote/watch/KRucwo?utm_source=chatgpt.com)

- **탐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Big Story 르앙 야이 Thai PBS(Big Story เรื่องใหญ่ Thai PBS)'는 태국의 사회, 정치, 문화, 재정, 환경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의 '중대한 사안들', 이른 바 '르앙 야이'에 대해 보도하고 원인 분석, 구조적 문제 제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주간 탐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며, 일부 회차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바 있음**

- 2025 년 5 월 24 일, 멈춰라! 사찰 재정 부정행위(หยุด ! โกงเงินวัด)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방영
  - ·· 왓 라이 킹 사찰에서 비롯된 사태를 통해 공덕의 돈(เงินบุญ)과 죄업의 돈(เงินบาป)이 서로 뒤엉켜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도하며, 이는 특정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불교계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함
  - ·· 태국 사회에서 승려와 사찰의 재정문제가 반복되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됨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승려를 존경하고 신뢰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찾음. 따라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 태국 전역 43,000 여개 사찰에서 모든 기부금 관리와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감시 및 예방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승가최고위원회와 국가 불교청이 실제 정책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함
  - ·· 하나의 사찰에서 벌어진 문제를 사례로 삼아 불교계 재정 부패의 구조적 원인, 제도적 감시 부재,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사찰 재정을 신앙의 대상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투명성 확보와 대정화의 필요성을 강조
- 2025 년 8 월 23 일, 사미승을 '뚜'에게 바치다(ส่งเณรถวายตู๊)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방영
  - ·· '뚜'는 태국 북부 방언으로 승려를 의미하며, 이 방송은 북부 지역에서 승려가 사미승이나 동자승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 사실을 다룸
  - ·· 탐사 결과 문제는 단순한 성적 학대에 그치지 않고, 사미승이나 동자승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존재함이 밝혀짐
  - ·· 이는 일부 승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불교계 내부 통제의 실패, 그리고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 ·· 프로그램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종교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사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외부 감시의 어려움, 제도적 공백과 법적 허점에서 찾고, 소년 보호 체계와 종교기관 감시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알림
  - ·· 승려의 소년 성학대 사건을 통해 이것이 일부 승려의 일탈로 인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종교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 제도 감시의 실패로 인한 것임을 드러냄. 또한 인신매매 조직화 위험성을 분석함. '승려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공 감시의 원칙을 강조하며 종교 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의를 촉발



| 그림 5 | Thai PBS의 'Big 르앙 야이 Thai PBS' 방송 장면
(출처: https://www.thaipbs.or.th/program/BigStoryThaiPBS/episodes/108411
https://www.thaipbs.or.th/program/BigStoryThaiPBS/episodes/109990)

- **시사 해설 프로그램 '넉 삼누안(นอกสำนวน)'은 토론, 인터뷰, 해설 등을 통해 뉴스 보도 틀을 밖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정치, 사회, 문화 이슈를 심층 해석하는 주간 프로그램으로 연애와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는 승려의 여성 문제를 보도한 바 있음**
  - 프로그램의 130 회차, '신앙의 흔들림: 승려-여성 재가신도 (ศรัทธาสั่นคลอน : พระ – สีกา)라는 제목의 방송이 방영됨
    - ·· 제목의 여성 재가신도를 나타낸 '시까(สีกา)는 승려와 관계를 가진 여성을 가르키는 비공식 용어로서, 해당 방송은 승려와 여성의 관계가 승려 개인의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불교의 종교적 권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
    - ·· 왓 뜨리(Wat Tri) 사찰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도 전 주지승과 그와 가까운 여성 측에서 어떠한 정보나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이 여러 차례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임을 보도
    - ·· 승려의 여성 스캔들은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타격이 결코 작지 않다는 문제 인식, 성관계 주장, 금전 요구, 사진·영상 유출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짐
    - ·· 승려의 도덕성, 사찰 내부 감시 구조, 제도적 허점 등이 거론되었으며, 승려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또한 승려의 여성 스캔들이 있을 경우, 이를 종교법 혹은 형사법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 적용 경계의 문제도 제기됨

| 그림 6 | Thai PBS의 '넉 삼누안'의 130회차 방송 장면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4y4jJWSfwAw)

2 Thai PBS의 이슬람교 관련 방송

- **이슬람교 관련 문화 유산과 관광 자원 관련**
  - 방콕의 매혹적인 무슬림 사원 소개- Exploring the Islamic Spiritual Heritage of Bangkok
    - ·· 방콕 내에서 가장 매혹적인 무슬림 사원 다섯 곳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사원이 지닌 고유한 이야기와 도시의 활기 속에서도 평온을 주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함
    - ·· 각 모스크의 역사적 가치나 건축미, 지역 무슬림 공동체의 문화적 역할을 조명함. 모스크가 단순 종교시설을 넘어서 도시의 문화 유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이슬람 문화의 존재감을 부각함

- 할랄 투어리즘 앱-Thailand's Halal tourism gets a boost with 'Halal Route' app
  - ·· 쭐라롱콘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의 할랄 과학 센터(Halal Science Centre)가 개발한 앱 'Halal Route'를 소개함
  - ·· 무슬림 관광객은 이 앱을 통해 태국 여행 중 할랄 인증 음식점, 이슬람 사원과 기도실, 숙박시설, 기도 방향(Qibla), 기도 시간표, 히즈리 달력(Islamic calendar) 등을 쉽게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음. 앱에 등록된 장소들은 현장 확인 및 감사 절차를 거쳤으며, HAL-Q 시스템과 같은 인증 제도를 통해 신뢰도 확보 시도됨
  - ·· 앱은 태국어, 영어, 아랍어를 지원하며, Google Maps 연동 기능이 포함됨
  - ·· 이를 통해 태국의 무슬림 관광객 편의 증진과 할랄 관광 경쟁력 강화 가능성을 보도함

이슬람교 축일과 무슬림의 의무 관련

- Walk-A-Tif | Eid al-Fitr festival at Thailand's oldest mosque: Thai PBS World 의 Walk-A-Ti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 탐방과 종교 행사 결합한 콘텐츠임
  - ·· 방콕의 이슬람교 사원에서 열린 라마단 종료 축제(Eid al-Fitr) 행사를 중심으로 무슬림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고 축하하는 장면을 보도함. 이슬람교 명절의 분위기, 의례, 공동체, 행사 참여자들을 통해 이슬람교의 일상적 실천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함
- Thailand to address rising cost of Hajj pilgrimage: 무슬림의 의무 중 하나인 하지(Hajj) 순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도함
  - ·· 사우디아라비아가 태국에게 할당한 하지 순례 쿼터(quota)는 13,000 명임에도 실제 태국 무슬림 중 순례를 떠난 인원은 7,738 명에 머물렀으며, 이는 하지 순례 비용 상승, 특히 항공료와 숙박비 증가가 순례 참여를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 ·· 태국 정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 종교 행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경제적 제약에 연계됨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국가의 지원·보조 정책이 종교 실천 접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임

남부 무슬림의 유혈 테러와 이슬람교 수장의 메시지 전달

- Chularajmontri deplores violence in south, urges protection of innocent civilians: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인 쭐라라차몬뜨리(Chularajmontri)가 남부 지역의 폭력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 태국 남부지역은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때때로 이유가 불분명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 해당 지역 불교도 및 무슬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
  - ·· 처음에는 남부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일어났던 폭력 사태가 시간이 흐르며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 학교, 불교 사원, 불교도 등을 대상으로 했던 데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변모하였음
  - ·· 이에 쭐라라차몬뜨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남부 각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태를 지목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함

·· 종교 지도자가 공동체의 안전 담론에 직접 개입한 사례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규제 조항 중 공공 질서 및 국민의 안전 보호와 맞닿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

V 결론: 전망 및 시사점

- **태국의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종교 콘텐츠의 공공성, 중립성, 다양성 확보는 단순한 제작 원칙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민주적 가치 유지의 핵심 축으로 작동됨**

- **특히 불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이슬람교, 기독교 등 소수 종교가 공존하는 태국의 다종교적 구조 속에서,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 ① 국가 정체성과 종교 감수성의 균형 필요성
    - ·· 헌법 제 67 조·제 31 조·제 70 조, 방송법 제 37 조 등은 불교 보호 의무, 종교 표현의 자유, 공공질서 유지 등을 규정하며 방송 규제의 근간을 이룸
    -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는 종교 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디어는 법적 기준과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
    - ·· 향후 OTT·디지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의 종교 표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② 종교 권위 감시와 공공성 담론의 심화
    - ·· 태국의 공영방송 Thai PBS 의 '떱쫏', 'Big Story 르앙 야이 Thai PBS', '넉 삼누안' 등의 사례에서 보듯, 방송은 종교를 '성역'이 아닌 공공 감시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함
    - ·· 사찰 재정 비리, 승려의 성범죄, 인신매매 연루, 여성 스캔들 등 민감한 사안을 신앙 문제가 아닌 제도·공공성 문제로 재구성하여 사회적 담론을 촉발함
    - ·· 이는 불교 다수 사회에서 종교 비판을 회피하던 관행을 넘어서 '감시–비판–개혁'의 공론장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③ 소수 종교와 사회 통합 관점의 확대
    - ·· 이슬람 관련 방송에서 볼 수 있듯, Thai PBS 는 단순한 종교 소개를 넘어 문화유산·경제·관광·사회 안전 등 다층적 맥락에서 소수 종교를 다룸
    - ·· 할랄 관광 앱, 하지(Hajj) 비용 문제, 남부 폭력사태 관련 쭐라차몬뜨리 성명 보도 등은 종교 실천이 경제·정치·사회 전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 향후 방송은 단순한 종교 소개를 넘어 다문화 사회 통합과 상호 이해 증진의 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
  - ④ 제도적 감시체계와 자율규제의 정교화 필요
    - ·· 영화·방송 심의에서 종교 모독·왜곡 금지 조항이 여전히 '사전 검열'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됨
    - ·· 방송사 내부에서 자율 심의 시스템, 사전 체크리스트, 시청자위원회 역할 강화 등 자율규제

체계의 정교화가 요구됨

‥ 특히 종교 상징·의식 사용 시 희화화 여부, 상업적 결합성, 타종교 균형성, 피해 가능성 등을 세밀히 점검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

- ⑤ 미래 전망: 디지털 전환기 속 종교 보도의 방향

‥ OTT 및 온라인 플랫폼으로 종교 콘텐츠 소비가 이동하면서, 기존 방송법 중심 규제가 기술·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 프레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종교 콘텐츠가 단순 교리 전파에서 벗어나 공공성·투명성·사회 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사회·종교 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 논의 속에서, 방송은 종교적 권위에 대한 민주적 감시자이자 다문화 공존의 조정자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Bangkok Post, “Wat Dhammakaya’s TV station to be ordered off air” (2016.12.7)

Bangkok Post. (2015, October 14). Ministry bans Arbat film for blasphemy. Bangkok Post.

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es Act B.E. 2551(2008)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B.E. 2560 (2017)

Film and Video Act B.E. 2551 (2008)

Khaosod English. (2015, October 13). ‘Arbat’ monk film banned in Thailand over fears it could destroy Buddhism. Khaosod Engl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ailand. (2017, March). Clarification on NBTC’s revocation of Dhammakaya Media Channel license. Bangkok: MFA

Nation Thailand. (2016, December). NBTC orders DMC channel temporarily suspended under Section 64 and NCPO Order No. 97. Nation Thailand.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 (2016, December 26). Revocation of DMC’s broadcasting license under Section 64 of the Broadcasting and Television Business Act B.E. 2551. Bangkok: NBTC.

Notification of the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on Licens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B.E. 2555 (2012)

Poonpol, S. (2017). The moral guardian: Censorship and film classification in Thailand. In Proceedings of the Asian Conference on Cultural Studies 2017 (pp. 49–54). IAFOR.

Royal Thai Government Gazette (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 (2014).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o. 97/2557. Government Printer.

Royal Thai Government Gazette. (2014).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o. 97/2557. Government Printer.

Thai PBS. (2016, December). *กสทช.สั่งระงับเผยแพร่ภาพและเสียงสถานีโทรทัศน์วัดพระธรรมกาย* (DMC TV). Thai PBS.

Thai PBS News. (2016, December 8). NBTC orders DMC TV off air for 15 days under Section 64 and NCPO Order No. 97. Thai PBS. https://www.thaipbs.or.th

Thai PBS World Tonight. (2020, April 24). Muslims adjust Ramadan practices amid COVID-19.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

Thai PBS World. (2024, September 18). Bangkok’s Islamic heritage: Communities and mosques. Thai PBS. https://www.thaipbsworld.com

Thai PBS World. (2025, May 6). Chularatchamontri urges peace and protection of civilians in the South. Thai PBS. https://www.thaipbsworld.com

Thai Public Broadcasting Service Act B.E. 2551 (2008)

The Second Broadcasting Master Plan B.E. 2563-2568(2020-2025)

Times of India. (2015, October 13). Thai Buddhist monk horror film banned on fears it could destroy faith. The Times of India.

Variety. (2023, April 5). Thailand's censors order edits to horror film 'Hoon Payon' over use of Buddhist imagery. Variety.

Wikipedia contributors. (2024, July 15). Angulimala (2003 film). In Wikipedia. Retrieved October 6, 20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Angulimala_(2003_film)

Wikipedia contributors. (2024, September 28). Come and See (2019 film). In Wikipedia. Retrieved October 6, 20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ome_and_See_(2019_film)

https://broadcast.nbtc.go.th/data/document/law/doc/en/640100000001.pdf?utm_source=chatgpt.com

https://theworld.org/stories/2021/03/09/thai-organization-s-crusade-against-blaspheming-buddha?utm_source=chatgpt.com

https://world.thaipbs.or.th/detail/chularajmontri-deplores-violence-in-south-urges-protection-of-innocent-civilians/57435?utm_source=chatgpt.com

https://world.thaipbs.or.th/detail/exploring-the-islamic-spiritual-heritage-of-bangkok/54219?utm_source=chatgpt.com

https://world.thaipbs.or.th/detail/thailands-halal-tourism-gets-a-boost-with-halal-route-app/55903?utm_source=chatgpt.com

https://world.thaipbs.or.th/detail/thailands-halal-tourism-gets-a-boost-with-halal-route-app/55903?utm_source=chatgpt.com

https://world.thaipbs.or.th/detail/thailand-to-address-rising-cost-of-hajj-pilgrimage/447?utm_source=chatgpt.com

https://www.nso.go.th/nsoweb/nso/survey_detail/iX

https://www.thaipbs.or.th/program/BigStoryThaiPBS/episodes/108411

https://www.thaipbs.or.th/program/BigStoryThaiPBS/episodes/109990

https://www.thaipbs.or.th/program/TobJote/watch/KRucwo?utm_source=chatgpt.com

https://www.thaipbs.or.th/program/TobJote/watch/lPajAp?utm_source=chatgpt.com

https://www.youtube.com/watch?v=4y4jJWSfwAw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5년 08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철민 (태국비즈니스센터장)
집필자	한국태국학회 (옹지인, 부산외대)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발행일	2025년 10월 2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